

아이

어린이

아이들은 서로를 잘 압니다.

어린이들은 무서워하는 게 많다.

아이들은

기후 변화와 강제 이동에 의해 불균형한 영향을 받아요.

다섯 살 어린이에게는 삶이나 죽음을 선택할 기회가 없었다.

아이들은

직접 표현하지는 못해도

우리가 측정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말을 이해하고 있다.

어린이를 만드는 건 어린이 자신이다.

“아이가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?”

그런데 사르트르 어린이도 글자를 익혔다고 해서

바로 읽기의 세계로 돌입하지는 못했을 것이다.

아이들의 통학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일어나지만

일주일 단위로, 또 계절 단위로 바뀌기도 한다.

어린이는

어깨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,

양팔을 조금만 뒤로 하고 서 있으면 된다.

그리하여 아이들은

상속자이면서 동시에 투자 대상, 즉 재산 자체가 된다.

어린이들은 나에게 무엇이든 잘 준다.

가령 옆집 아이는 동네라는 변압기를 거쳐
어떤 학교의 학생으로, 시민으로, 유권자로 변신한다.
그건 나 스스로 어린이에 대해
말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.

이 새로운 가족 안에서,

재산의 관리 — 즉 아이들의 몸과 시간표의 관리 — 는 여전히 구성원들의 관심을 지배한다.

그 어린이는 다른 사람의 의지로 인해 죽었다.